전북대병원 Wee센터 운영 본격화

도교육청과 '병원형 Wee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원광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

원광대병원 이어 전북대병원의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이 본격화된다.

21일 도교육청 5층 손님맞이 방에서 김승환 교육감과 유희철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 전북대학교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병원형 위(Wee)센터'는 상담-진단에서부터 전문적 심층치료, 대안교육과정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고위기 학생이 건강하게 학교로 복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병원형 위(Wee)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전북대병원은 앞으로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학생의 상담-진단-치료에 관한 관리 및 지원 ▲정신건강의학적 위기로 학교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프로그램 운영 ▲학생 마음건강증진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운영 등을 위탁 받아 추진된다.

프로그램 운영 대상 학생은 우울증 및 정서 불안 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도교육청 관내 초·중·고·특수학생이다. 또 자살 시도 및 자해 등으로 위기지원이 필요한 학생, 정신건강의학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필요한 학생 등도 참여 대상이다.

학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원형 위(Wee)센터에서 사례회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판단, 최대 1개월 이내 치료와 대안교육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병원형 위(Wee)센터가 위기학생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다.

유희철 병원장은 "병원형 위(Wee)센터는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상담과 치료가 가능한 전문기관이다"면서 "심리·정서적으로 힘든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기댈 수 있는 따뜻하고 힘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1일 도교육청 5층 손님맞이 방에서 김승환 교육감과 유희철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 전북대학교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웹드라마 캡처.

수험생 맞춤형 입시 영상 '눈길'

전북대, 웹드라마·뮤직비디오 등 두 장르로 제작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고등학생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게 대학의 정보를 담은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영상은 '웹드라마'와 '뮤직비디오' 두 장르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웹드라마는 콘텐츠를 짧은 시간에 압축한 옴니버스 형태로, 총 6분 분량에 3가지의 주제를 담았다. 첫째 힘겨운 수험생에게 도움을 주는 '너의 손을 잡아줄게', 둘째 알찬 대학생활의 길잡이 '큰 사람이 되는 법', 셋째 대학 선택을 안내하는 '여긴 어大' 등이다. 특히 전북대 입학처장이 직접 출연해 스토리를 이끌어 가고, 화면으로는 한옥으로 된 정문과 문회루 등 캠퍼스의 상징적인 공간과 건축물을 홍보하고 있다.

3분 분량의 뮤직비디오는 고등학생이 선호하는 '랩'과 소리의 고장 전북의 특성을 담은 '퓨전 판소리' 두 장르를 결합해 흥미롭고 박진감 넘치게 구성됐다. 이 작품에는 전북대 홍보대사 학생이 '대학식당' '도서관' '건지산' '박물관' 등 캠퍼스 곳곳을 누비며 영상으로 소개하는 동시에 '큰사람프로젝트' 등 대학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경쾌하게 소개하고 있다.

전북대는 이번에 제작한 영상을 입학 홈페이지와 전북대 공식 유튜브에 올리고, 고등학교 입시설명회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주상현 입학처장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이 영상은 기존 영상과 달리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장르에 맞추는 파격적인 방식을 시도했다"며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하는 고등학교 수험생은 물론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4일 '고2·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도내 102개 고교서 등교시험
평가결과 내달 14일부터 통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24일 고2·고3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도내 102개 고등학교에서 등교 시험으로 치러지며, 이번 평가에 응시하는 고2 학생은 1만5,343명, 고3 학생은 1만6,337명이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하고, 시험 시행 전 교실 및 복도에 방역 소독과 함께 교실별로 손 소독제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학교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발열 체크를 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학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학생 급식실 이용 시에는 대각선 또는 일렬 식사를 하고, 급식실 입장 전 손 소독(손 씻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2개 학년 동시 실시에 따른 점심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한해 점심시간을 기존 50분에서 60분으로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재택 응시자(가정학습, 자가격리 등 출석 시험 응시가 어려운 학생)의 경우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http://www.gsat.re.kr/문제지 자료실)에서 시험 당일 실시간으로 내려 받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재택 응시의 경우 성적처리는 가능하지 않다.

평가 결과는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수능 대비 모의고사는 6월 9일과 8월 31일에 각각 시행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7일 실시되며, 12월 9일 성적 통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창업동아리 출신 창업가들, 발전기금 기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1일 창업지원단 창업동아리 출신 선배 창업가 2명이 후배 창업가 양성을 위해 발전기금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자는 전주대 창업기업 ㈜더블유엠어시 김우찬 대표(컴퓨터공학과 14학번)와 ㈜텔로스 황큰별 대표(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10학번)다.

김우찬 대표는 "전주대의 창업인재전형으로 입학 후 창업동아리를 거치며 창업하기까지 모교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혜택을 받았다"며, "작지만 후배 창업가와 창업 저변확대를 위한 금액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성덕 대외부총장은 "청년 창업기업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학교를 위해 기부 해줘서 감사하다"며, "기부해 준 발전기금은 재학생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선배 창업가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를 기부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21일 대학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학 운영 기본방향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 주체 국립대학으로 성장'

이장호 군산대 총장, 대학운영 기본방향 간담회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이 21일 대학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학 운영 기본방향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총장은 "중차대한 시기에 총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새로운 대학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기회를 가지게 돼 가슴이 설렌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학령인구 감소와 재학률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지만 이 어려움을 잘 넘기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대학에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대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실패한다. 어떻게 하면 잘된다는 경험을 충분히 했다. 실패했던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부분은 잘 확대해 새로운 대학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대학이 준비하고 있는 변화들은 외부 환경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현재 추진력 있는 젊고 유능한 분들이 대학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복안·사업 계획을 짜고 있어 군산대가 혁신성을 갖춘 새로운 대학으로 충분히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군산대가 경쟁력 있는 대학, 혁신을 주도하는 대학, 국립대학으로서 지역 주체 역할을 해나가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대통령직 인수위에 교육계 인사 배제 안될말"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윤석열 교육정책 비판
"극단적 경쟁으로 교육을 시장판으로 만들려 해"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통령인수위에 교육계 인사가 배제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천 후보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3명은 모두 과학기술 분야 인사로 교육계 인사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인수위가 교육을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의 교육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의 책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육전문가가 인수위에 주요하게 참여해 국정과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 후보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시절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하고 극단적 경쟁교육으로 교육을 시장판으로 만들었던 악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천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입 정시비율 확대 공약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시가 '부모 찬스를 차단하는 공정한 대입'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정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의 경제력인데 정시를 확대한다면 교육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천 후보는 "오늘날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및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차별과 경쟁을 극복하고 평등과 협력으로 교육의 새로고침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새 정부가 극단의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교육감이 되어서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천호성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현재 전주교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교육청소년본부 상임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마음지도사 수강생 모집

원광대학교는 마음인문학연구소가 2022년도 마음지도사 2급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는 지난 2010년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HK) 지원 사업 선정에 이어 2022년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 사업에 재차 선정돼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이다.

마음지도사 2급 양성과정은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연구소 교수진이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 삶의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일상형 마음공부로써 개인의 마음과 삶은 물론 사회적 관계의 질적 상승을 도모하는 입체적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교육은 오는 31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전주 마음학교에서 진행된다. /뉴시스

전북교사노조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 해야"

전북교사노동조합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생활지도법을 법제화 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유초등교원 842명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법 법제화, 교사인권센터 설치, 교권 침해를 당할 시 3심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 지난 10년간 경험한 교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에 대해 99.4%가 찬성했다.

또 교원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변호사 비용을 전북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에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이 99.6%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10년 간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을 살펴보면 수많은 학생의 욕설과 폭행, 성추행, 성희롱, 협박, 지시 불이행 등이 있었다. 수많은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보복성 신고, 보복성 민원 제기 등이 있었지만 일선 학교나 교육청은 교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전북교육청에 교사인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 교사인권보호를 위해 교사인권센터 설치,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할 시 3심 변호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장은성기자

"방과 후 학습으로 유도 배웠어요"… 화산중 한지수, 전국대회서 메달 획득

방과 후 학습을 통해 유도를 배우고 있는 중학생이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순천에서 열린 '2022 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에서 완주 화산중학교 한지수양(2년)이 +70kg 이상 체급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화산중은 '공부도 으뜸, 운동 실력도 으뜸'을 기치로 체육시간과 방과 후 학습을 통해 틈틈이 유도를 가르치고 있으며, 현재 6명(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이 유도를 배우고 있다.

이는 전문 엘리트 체육보다는 스포츠클럽 활동에 가까운 것으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체육 선진 국가들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한지수양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 유도를 접했고, 방과 후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병행했다.

이진호 감독은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공부하며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돼 있다"며 "공부와 운동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